



# 送年辭

會 長 具 滋 曠

工業所有權制度的 國際化 時代에 對備하고 技術立國으로 指向하는 政府施策에 副應하여 技術革新의 要諦가 되는 工業所有權制度的 定着과 發明環境의 造成을 위하여 事業基本方向의 3大目標을 ① 工業所有權意識提高 ② 發明振興獎勵 ③ 特許管理體制確立에 두고 ④ 發明特許意識高揚事業 ⑤ 工業所有權管理要員養成輩出事業 ⑥ 發明振興行事 및 展示事業 ⑦ 發明支援事業 ⑧ 發明保護啓導事業 ⑨ 工業所有權制度調查研究事業 ⑩ 工業所有權管理資料發刊·普及事業 ⑪ 各種公報發刊事業 ⑫ 發明·特許資料(冊子)販賣센터 運營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出帆했던 乙丑年도 저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世界各國의 自國産業保護를 위한 輸出制限과 保護貿易主義強化로 貿易障壁이 크게 높아진데다, 特히 美國의 知的所有權保護壓力까지 執拗해 실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本會 發展에 同參해주신 關係機關과 會員企業 그리고 發明人 여러분의 勞苦에 뜨거운 感謝를 드리며, 年末을 맞아 國家産業發展의 原動力이 되는 特許管理體制 確立과 發明振興의 重要性을 다시 한번 깊이 認識하고 그 促進을 위한 決意를 새롭게 가다듬을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開途國들은 低成長時代에 살면서 經濟不況을 打開하기 위해 온갖 心血을 기울이고 있으며 特히 發明, 즉 尖端技術開發을 통한 對外競爭力強化와 이의 獎勵保護를 위한 工業所有權制度的 活用에 注重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資源이 貧困하고 對外輸出依存도가 높아 先進國의 技術保護障壁과 後開途國의 追擊을 동시에 뿌리쳐야 하는 우리나라는 여타 國家보다도 尖端技術開發이 切實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尖端技術開發을 組織의으로 이끌어 갈 制度的 裝置의 活用이 그 어느때보다도 要請되며 이에 工業所有權制度的 確立은 우리나라 企業의 至上課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本會는 今年 1年도 事業基本方向 3大目標에 의거하여 國內外 研修를 擴大實施함으로써 專擔要員의 資質向上과 企業의 工業所有權에 대한 認識을 提高시켰음은 물론 매월 發明教室을 통하여 一般人에 대한 發明 및 工業所有權知識 普及에 힘을 기울였으며 特히 全國民의 發明意識高揚과 發明品の 企業化 促進을 위해 國庫補助에 의한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開催 및 試作品製作 등 發明支援事業의 推進과 發明品の 원활한 流通을 돕기 위해 發明品販賣展示會를 開催하였습니다. 또한 工業所有權管理業務에 實質적이고 必須의인 國內外情報資料의 供給에 力點을 두고 常設發明獎勵館에 發明·特許資料(冊子) 販賣센터를 設置, 發明·特許關係人들의 利用便宜를 圖謀함과 함께 他人의 權利尊重風土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으로써 工業所有權紛爭仲裁委員會를 運營하여 眞正한 發明者를 保護하는 同時에 工業所有權使用秩序確立을 위해 啓導活動을 積極 展開하는 등 나름대로 最善을 다했습니다.

또 國際의으로는 「産業發展戰略과 特許制度的 役割에 關한 國際세미나」를 우리나라에서 開催함으로써 國內 工業所有權界로서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今後의 國際環境은 豫測조차 不可하므로 企業人들은 高度化하는 尖端技術變化에 對處해 나갈 수 있는 經營態勢를 더욱 強化하여야 하겠습니다.

本會에서는 急變하는 國際動向에 對處할 수 있도록 지난 1年을 거울삼아 工業所有權 制度的 企業內 運用을 實踐하는데 最大의 뒷받침과 協調를 다할 것이며 特히 尖端技術의 開發活用に 도움이 될수 있는 情報資料의 提供 및 要員의 精銳化, 그리고 最高經營層의 工業所有權 制度的 認識提高를 위한 關聯事業을 積極 展開해 나갈것입니다. 끝으로 해가 바뀌는 時點에서 지난 1年동안 本會 發展에 同參해주신 關係機關과 會員企業 그리고 發明人에게 다시 한번 感謝드리며 아울러 하시는 事業이 더욱 繁昌하고 家庭에 幸運이 깃들시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5년 12월 20일